

주님 세례 축일(1월 12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 3,15-16.21-22)



그리스도의 세례

조토 특유의 코발트빛 푸른 배경이 펼쳐지고, 상단 중앙에는 빛으로부터 등장한 하느님께서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오른손으로 예수님께 축복을 내리고 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공적 임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중앙에는 에메랄드빛의 요르단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순백의 예수님 상체는 거룩함과 순결을 증명하듯이 눈이 부시다. 예수님의 후광은 다른 성인들과 달리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요한은 팔을 길게 뻗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는 낙타 털 옷에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는데, 낙타 털 옷은 광야생활을 상징하고 붉은 망토는 순교를 상징한다.

작가 조토 | 1304-06년, 프레스코, 200x185cm, 스크로베니 성당, 이탈리아.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3번 “온 세상 다스리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오소서. 저희와 함께 머무르소서.
-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당신께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21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신앙생활 중 하느님보다 '나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 집중하지는 않았습니까?

(루카 3,16 참조)

세례를 받은 신앙인으로써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루카 3,22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세례성사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공동체가 주어집니다. 다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제, 자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저 주어진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세례성사가 자신에게는 족쇄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일미사, 금육, 십계명, 헌금, 교무금, 단체활동 등등 의무적으로 해야 할 숙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앙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영원한 생명을 받겠다는 결심과 실천만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세례를 통해 새로 태어나던 그 순간 우리는 악의 유혹과 죄악을 끊어버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오로지 하느님으로부터만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에 따른 삶을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루카 3장 22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교황님 1월 기도 지향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며 구성원들과 십자가의 길 바치기
- ② 모임 시 식사나 다과 비용을 모아 후원하기 (ACN[고통받는 교회 돕기], 국경 없는 의사회 등)

내 삶 속에서

- ① 저녁 기도와 함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바치기
- ② 전쟁 중 특히 더 고통받는 이들인 아이들을 위하여 묵주기도 20단 바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3번 “온 세상 다스리심” 2절을 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